

완벽하게 100% 적중!!

이제 **최고로 가독성** 좋은 책과 **최적의 강의**로 준비하세요!! **민주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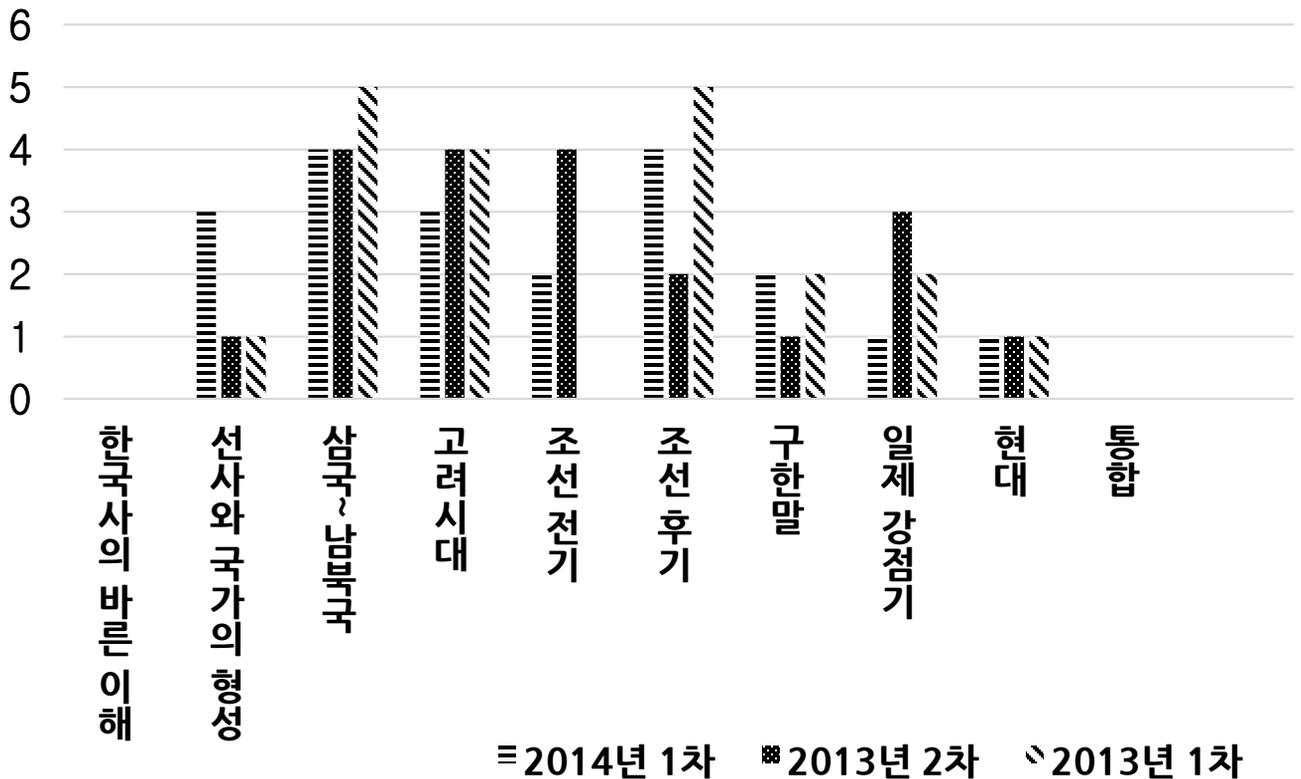


2014년 3월 15일
일반 경찰 한국사 1차



[민주국사]

단원별 출제 문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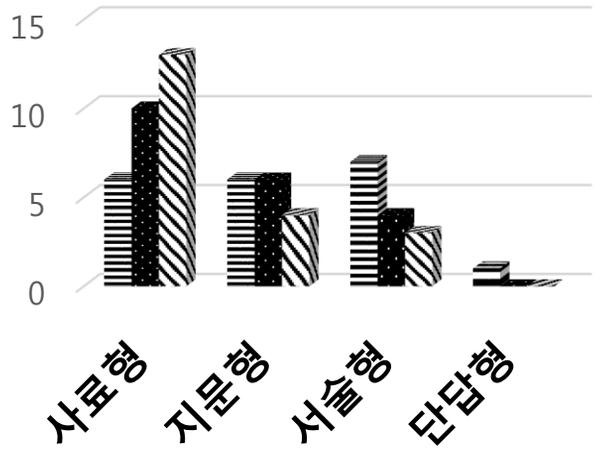


완벽하게 100% 적중!!

이제 **최고로** 가독성 좋은 책과 **최적의 강의**로 준비하세요!! **민주국사**

유형별 문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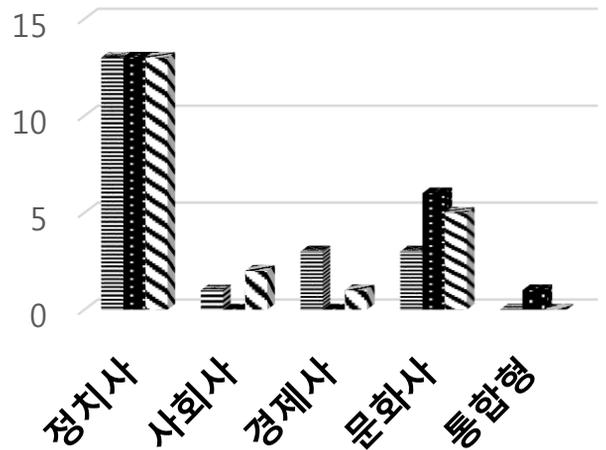
| 출제유형 | 2014년 1차 | 2013년 2차 | 2013년 1차 |
|------|-------------|-------------|-------------|
| 사료형 | 6 | 10 | 13 |
| 지문형 | 6 | 6 | 4 |
| 서술형 | 7 | 4 | 3 |
| 단답형 | 1 | 0 | 0 |



≡ 2014년 1차 ■ 2013년 2차
 ◌ 2013년 1차

제도사별 문항 분석

| 출제유형 | 2014년 1차 | 2013년 2차 | 2013년 1차 |
|------|-------------|-------------|-------------|
| 정치사 | 13 | 13 | 13 |
| 사회사 | 1 | 0 | 2 |
| 경제사 | 3 | 0 | 1 |
| 문화사 | 3 | 6 | 5 |
| 통합형 | 0 | 1 | 0 |



≡ 2014년 1차 ■ 2013년 2차
 ◌ 2013년 1차

1.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 시대 유적이다.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 동검
- ② 양양 오산리 유적 - 뼈 낚시바늘
- ③ 여주 혼암리 유적 - 오수전
- ④ 부산 동삼동 유적 - 빗살무늬토기

출제영역 선사 시대 유물 · 유적 p.67~71, 91~95

정답 ③

민주국사 p. 67 신석기 시대 유적

3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

(3) 토기의 사용

- ① 이른 민무늬 토기[原始無文土器], 덧무늬 토기[太線隆起文土器], 눌러찍기무늬 토기[押し文土器]
가장 오래된 토기로 제주도 한경 고산리, 강원 고성 문암리, 함북 웅기 굴포리 서포항, 강원도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등에서 출토되었다.

☞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민주국사 p. 91 청동기 시대 유적

(4) 유적지

① 분포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



| 구분 | 대표적 유적지 |
|-------|---|
| 북한 지역 | 평북 강계 공귀리, 의주 미송리, 함북 회령 오동리, 나진 초도, 평양시 사동 구역 금탄리와 남경등 |
| 남한 지역 | *충남 부여 송국리, 경기도 여주 혼암리, 파주 덕은리, 충북 제천 황서리, 전남 순천 대곡리 등 |

② 특징적 유물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 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 준다.

민주국사 p. 93 철기 시대 유적

③ 중국과 교류 확대

- ① 화폐의 출토 :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을 통하여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한 것을 알 수 있다.



● 명도전



○ 오수전



● 반량전

2.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들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 ②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 ③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④ 위만 조선은 한의 침략에 맞서 1차 접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출제영역 고조선의 발전 p.102~104

정답 ③

민주국사 p 100

1 단군과 고조선

(1) 고조선의 성립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족장(군장)이 출현하였고, 이들 중에서 강한 족장이 주변의 족장 사회를 통합하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되었다.



● 단군왕검

(2) 고조선의 건국

① 건국에 관한 기록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칭호였다.

민주국사 p.102~103 - 고조선의 발전

(2) 위만 조선

② 성립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갔다. 그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년).

③ 준왕의 남하

패배한 준왕은 뱃길로 한반도 남부 진(辰)으로 가서 한왕(韓王)이 되었다.

민주국사 p 104

⑦ ^{*}한(漢)나라와 대립

㉠ 한의 무제 침략 : 한의 무제는 우거왕 때 고조선의 팽창에 따른 위협에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 고조선의 멸망 : 고조선은 1차의 접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에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였다(기원전 108년).

㉢ 우리 복색 : 위만은 입국 시 상투를 들고 조선인의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아 연나

▣ 위만 조선의 성립

1. 그 뒤 조선의 자손들이 교만하고 사나워졌다. 연이 장군 진개를 보내 조선 서쪽을 공격하여 서쪽 땅 2천여 리를 빼앗고 만변한(滿藩汗)을 경계로 삼았다. 조선이 드디어 약해지고 말았다.

(조선 왕) 부가 죽고 아들 준이 왕이 되었다. 20여 년이 지나 진승과 항우가 일어나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연·제·조 백성들이 괴로워하다가 차츰 차츰 준에게 도망하였다. 준은 이들을 서쪽 지방에 살게 하였다. 한이 노관을 연왕으로 삼자 조선과 연은 패수를 경계로 삼게 되었다.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한 뒤,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에게 항복하였다.

3. 다음의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을 헤아린다. 수해나 한재를 입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 ②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 ③ 가(加)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3세기 말 읍루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출제영역 부여의 사회 모습 p.107~108

정답 ④

부여의 특징 (민주국사 p.107~108)

⚙ 여러 나라의 성장



1 부여

부여 등 여러 나라(초기 국가)는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되었으며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1) 위치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2) 흥 망

① 발전

부여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② 멸 망

북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다가 3세기 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은 고구려 문자왕(494년) 때에 편입되었다.

(3) 정치 제도

① 정치 조직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四出道)를 다스리고 있었다.

4. 다음 역사적 사건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 ㉡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신라와 연합하였다.
- ㉢ 고구려 장수왕은 죽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 ㉣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출제영역

삼국의 발전 p.182, 186, 189~191, 193

정답 ②

| | | | |
|-----|--|---|---|
| 5세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개토 대왕 : 백제 공격, 왜구 격퇴, 후연 격파 → 요동 차지, 최초 연호 사용(영락) • 장수왕 : 평양 천도, 한강 확보, 흥안령(지두우) 일대 장악 남북조와 외교, 중원 고구려비, 경당 설립 • 문자왕 : 부여 복속, 최대 영토 차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왕 : 나제 동맹(눌지왕) • 개로왕 : 북위에 국서 전달, 한강 유역 상실 • 문주왕 : 웅진 천도 • 동성왕 : 결혼 동맹(소지왕), 탐라 복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눌지왕 : 부자 왕위 세습, 나제 동맹 결성(비유왕), 불교 전래 • 소지왕 : 결혼 동맹(동성왕), 우역 제도, 6부 설치, 시장(시사) 설치 |
| 6세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령왕 : 22담로 • 성왕 : <u>사비 천도</u>, 22부 설치, 국호-남부여, 나제 동맹 결렬(진흥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증왕 : "신라" 국호, "왕" 칭호, 우경, 우산 국 정벌, 순장 금지, 동시전 설치 • 법흥왕 : 율령 반포, <u>금관가야 복속</u>, 불교 공인, 병부 설치, 율령 반포, 상대등 제도, 연호 사용(건원) • 진흥왕 : 화랑도 공인, <u>한강 확보</u>, <u>대가야 정벌</u>, 「국사」 편찬 |

⚙️ 고구려의 전성(5세기 장수왕 때)



⚙️ 신라 진흥왕 때의 영토 확장



5. 다음 중 신라 왕호와 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거서간·차차웅 -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 분리
- ㉡ 이사금 - 연장자의 의미로, 박·석·김 3부족이 연맹하여 교대로 왕을 선출
- ㉢ 마립간 - 김씨가 왕위 계승권을 독점하면서 왕권 강화
- ㉣ 왕 - 지증왕이 처음 사용하였고, 중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 들이기 시작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출제영역 신라의 왕호 변천 p.162~163

정답 ④

신라 왕호의 변천

| 왕 호 | 사용 시기 | 의 미 |
|----------|-----------|-------------|
| 거서간(居西干) | 박혁거세 | 대인, 군장, 불구내 |
| 차차웅(次次雄) | 남해 | 제주, 무당 |
| 이사금(尼斯今) | 유리~출해 | 계승자, 연장자 |
| 마립간(麻立干) | 내물~소지 | 대군장, 우두머리 |
| 왕(王) | 지증왕 | 한자식 왕호 |
| | 법흥왕~진덕 여왕 | 불교식 왕명 |
| | 무열왕 | 중국식 시호 |



신라의 발전과 왕호 변천

신라에서는 왕의 칭호가 거서간(居西干), 차차웅(次次雄), 이사금(尼斯今), 마립간(麻立干), 왕(王)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신라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그 칭호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자료를 살펴보면 거서간을 왕명으로 사용하던 시기부터 이사금을 사용하던 시기까지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이전의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한 사람 혹은 한 집안이 왕위를 독점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 왕위를 계승했음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이사금이라는 말은 '잇금'을 의미하는 칭호로서 "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는 당시 관념에 따라 '지혜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사금을 선출할 때 떡을 입에 물려 잇금이 많이 난 사람을 이사금으로 선출했다고 한다. 김씨가 왕위 세습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그 왕권의 강화를 표시하기 위해 대군장이란 의미의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그 뒤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고, 이어 6부를 개편하여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면서 마립간 대신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7. 다음 중 삼국 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국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 ②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남녀 인구 수와 소·말의 수, 토지 면적 등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되었다.
- ③ 신라에서는 4~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 ④ 삼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여 수도 뿐 아니라 농촌 각지에서도 시장이 번성하였다.

출제영역 고대 경제 생활 p.296, 302

정답 ④

민주국사 p. 296 - 삼국시대 상업

- ① 시장의 설치 : 농업 생산력의 수준이 낮아 수도와 같은 도시에서만 정부와 지배층의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다.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신라는 5세기 말 소지왕 때 경주에 시장을 열어 물품을 매매하게 하였다.
- ② 동시전의 설치 : 6세기 초 지증왕 때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東市典)을 설치하였다.

8. 다음은 고려 성종이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 ㉣ 3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 ㉤ 최승로가 올린 시무 10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 1개
- ㉡ 2개
- ㉢ 3개
- ㉣ 4개

출제영역 **고려 성종의 업적 p.424~428** **정답 ㉡**

- 2008 서울시 교육행정직 9급 기출 -

중국의 3성 6부제를 도입하였으나 고려의 실정에 맞게 2성 6부제로 운영하였다. (△)

민주국사 p. 424

6 성종의 개혁 정치(981~997년)

(1) 유교 정치의 실현

성종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2)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

① **배경** :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9. 고려시대의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 하였다.
- ②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고, 도방을 확대하여 군사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 ③ 최우는 문무백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서방과 능력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하였다.
- ④ 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 및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출제영역 무신 정권기 p.440~443

정답 ③

민주국사 p. 442~443

⑤ 최우(최이)의 집권(1219~1249년)

- ㉠ **정방의 설치** :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도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고, 더 나아가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여기에는 정색승선(政色承宣) 등 문인을 등용하였다.
- ㉡ **서방의 설치** : 최우가 설치한 문사(文士)들의 숙위 기구로 문학적인 소양과 함께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하여 **고문(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 최씨 무신 집권기의 권력 기구

| 기구 | 설립자 | 역할 |
|------|-----|-----------------------------------|
| 교정도감 | 최충헌 | 반대 세력 제거, 인사·세무·감찰 등 최고 집정부 |
| 도방 | 경대승 | 최충헌이 부활, 신변 경호 |
| 서방 | 최우 | 문학적 소양,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 등용, 고문 역할 |
| 정방 | 최우 | 문무백관의 인사 행정 담당 |

11. 다음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겉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라고 하였다.

- ① 명종 때에 을묘 왜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임시 회의 기구이다.
- ② 세도정치기에도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
- ③ 의정부의 의정과, 공조판서를 제외한 판서 등 주요 관직자가 참여하는 합좌 기관이다.
- ④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출제영역 비변사의 설치와 변화 p.923~924

정답 ①

민주국사 p. 923

(2) 비변사의 기능 강화

① 설치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초에 **삼포왜란**을 계기로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때에는 국방 문제에 정통한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임시 회의 기구였다.

⚙ 비변사의 구조



② 상설 기구화

점차 국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6세기 중엽(명종, 1555년)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가 되었다.

③ 비변사의 기능 확대와 그 결과

㉠ 기능 확대 :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위 관원들이 합의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군사 업무와 함께 여러 행정 부서의 직무도 통할하게 되는 국가 최고 관부로 자리 잡아 갔다.

⚙ 비변사의 변천 과정

| 내용 | 시기 | 계기 |
|-------|--------|-------------|
| 임시 설치 | 중종 | 삼포 왜란 |
| 상설 기구 | 명종 | 을묘왜변 |
| 기능 확대 | 선조 | 임진왜란 후 |
| 기능 폐지 | 흥선 대원군 | 의정부, 삼군부 부활 |

12. 다음은 조선시대 봉당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후,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후, ㉢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 ① ㉠ -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에서 주로 소극적인 부류가 서인, 적극적인 부류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 ② ㉡ -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나뉘어져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였다.
- ③ ㉢ - 예송논쟁에서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었다.
- ④ ㉣ -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제영역 **봉당 정치의 전개** p.708~714, 929~930

정답 ④

민주국사 p. 713

⚙️ 서인과 남인의 비교

| 구분 | 서인(이이) | 남인(이항) |
|----|---------------------------------|---|
| 정치 | <u>대신이 주도하는 정치 지향</u> | <u>왕권 강화</u> , 3사(三司)의 정책 비판 기능에 큰 비중 |
| 경제 | • 부국강병에 큰 관심 • 상업·기술 발전에 호의적 | • <u>수취 체제 완화와 자영 농민 육성</u> 에 치중 • 상업·기술 발전에 소극적 |
| 사회 | 노비 속량, 서얼 허통에 비교적 적극적 | 기존의 신분 질서 유지 |
| 학문 | 사서(四書)중심 -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 율곡 학파 | 6경(六經)중심 - 주자 성리학의 상대화, 퇴계 학파 |

민주국사 p. 930

⚙️ 노론과 소론

| 구분 | 노론 | 소론 |
|------|---|---|
| 중심인물 | 송시열(노장파) | 윤증(소장파) |
| 학통 | 이이 | 성혼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후기 정치 주도 • 주자 중심 성리학 절대화 • <u>민생 정치 강조</u> • <u>대의명분 중시</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리학의 탄력적 적용 • <u>실리 추구</u> • <u>적극적인 북방 개척 주장</u> |

완벽하게 100% 적중!!

이제 **최고로** 가독성 좋은 책과 **최적의 강의로** 준비하세요!! **민주국사**

붕당정치 (민주국사 짱정리 p. 50)

| 동인과 서인 | 구분 | 출신 | 척신 정치 개혁 입장 | 성향 | 학맥 |
|--------|----|------|-------------|----------|-------------|
| | 동인 | 신진사림 | 적극적 | 도덕적 자기절제 | 이항, 조식, 서경덕 |
| | 서인 | 기성사림 | 소극적 | 제도 개혁 | 이이, 성혼 |

| 서인과 남인 | 구분 | 주장 | 사회·경제 | 학문 |
|--------|----|--------------------|--|-----------------------------------|
| | 서인 | 신권 중시, 부국강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비 속량·서얼 허통 상업과 기술 발전에 적극적 | 사서(四書) 중심 -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 율곡 학파 |
| | 남인 | 왕권 강화, 정책 비판 기능 중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과 기술 발전에 소극적 수취 체제의 완화와 자영농의 육성 | 6경(六經) 중심 - 주자 성리학의 상대화, 퇴계학파 |

| 예송 논쟁 | 구분 | 기해예송 | 갑인예송 |
|-------|----|--|-------------------------------|
| | 배경 | 효종의 상 때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 | 효종 비의 상 때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 |
| | 서인 | 1년설(송시열, 송준길), 「주자가례」, 천하동례(天下同禮) | 9개월설 |
| | 남인 | 3년설(허목, 윤휴), 「국조오례의」, 왕자례부동사서(往者禮不同土庶) | 1년설(기년설) |
| | 채택 | 서인(1년설) - 효종의 정통 불인정(신권 강화 목적) | 남인(1년설) - 효종의 정통 인정(왕권 강화 목적) |

| 붕당 정치 전개 | 구분 | 집권 | 논쟁·주장 | 인물 | 의미 |
|----------|------------|----|---|---|-----------------------------|
| | 선조 (16세기) | | 척신 정치 잔재 청산 관직 쟁탈전(이조전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인(김효원·유성룡) 서인(심익검·정철) | 붕당 정치 시작 |
| | 광해군 (17세기) | | 정여립 모반 사건 건저의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인(유성룡) 북인(이산해) | 붕당 정치의 전개 (상대 세력의 공존 인정) |
| | 인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리적 중립 외교 전후 복구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인(강경파) 남인(온건파) | |
| | 효종 | | 북벌론 | | |
| | 현종 | | 예송 논쟁 [기해(서인) 갑인(남인)] | | |
| | 숙종 | | 남인에 대한 처벌 정책 수립 과정 (경신환국, 탕평책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론(송시열) 소론(윤증) | |
| | | | | | |

13. 다음은 조선시대 양 난 이후 수취 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정법에서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 ②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 ③ 영정법에 따라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④ 대동법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혁론으로 제기되었다.

출제영역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변화 p.1034~1042
민주국사 p. 1035

정답 ③

(2) 영정법의 시행(인조, 1635년)

① 배경

- ㉠ 농민의 전호화 현상 : 지주 전호제가 강화되어 가는 속에서 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전호로 전락하였으며, 과중한 부세는 그들을 온전히 살 수 없게 하였다.
- ㉡ 농민의 불만 : 농민은 자신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정책을 기대하였다.
- ㉢ 조세의 비효율성 : 15세기의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매우 번잡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16세기에는 아예 무시된 채 최저율의 세액(4~6두)이 적용되고 있었다.

② 내용

정부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③ 결과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대다수의 병작농(竝作農)인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민주국사 p. 1042

⚙ 수취 체제의 개편

| 구분 | 초기 | 중기 | 후기 | |
|----|--|--|----------------------|--|
| 전세 | 과전법 (여말, 선초) 1결당 30두 | 연분9등법 (세종) 1결당 20~4두 (풍·흉 기준) | 1결당 6~4두 (최저율 적용) | 영정법 (인조) 1결당 4두 징수 (풍·흉 무관) |
| | 손실담험법 토지 넓이와 수확 기준 | 수등이척법 양전하는 자(尺) 다름 | | 양척동일법 (효종) 양전하는 자(尺) 동일 |
| 공납 | 공납 •상공, 별공, 진상 •호(戶) 기준 •수취, 수송의 폐단 | 방납 •경저리, 서리 등 대납 •농민 부담 증가 | 수미법 이이, 유성룡 등 | 대동법 •공납(상공) ⇨ 미·포·전 •戶 ⇨ 토지(結 12두) |

14.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 ②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다.
- ③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대신에 딸과 외손자가 제사를 지냈다.
- ④ 혼인은 친영제에서 남귀여가혼으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출제영역 조선 후기 가족 제도 p.988~991

정답 ②

민주국사 p. 991

⚙ 고려와 조선의 가족 제도와 여성의 지위

| 내 용 | 고려~조선 전기(중기) | 조선 후기 |
|--------|--|-----------------------------------|
| 가족의 범위 | 부계와 모계를 함께 고려 | 부계 위주 |
| 혼 인 | • 왕실에서는 고려 전기까지 친족 간의 혼인 성행 • 남편이 결혼 후 처가에서 장기간 생활(남귀여가혼) | 친영 제도 정착 |
| 재산 상속 | 자녀 균분 상속 | 장자 우대 상속, 자녀 차등 상속 |
| 제 사 | 자녀들의 제사권 공유 | 적장자의 제사권 독점 |
| 가계 계승 | 아들이 없을 때 딸 · 외손이 가계 계승, 족보에 모계 · 사위도 기재 | 양자에 의한 가계 계승과 부계 위주의 족보 |
| 주거지 | 사위가 처가에 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가의 호적에 입적 | <u>동성 마을의 형성과 종중(宗中) 형성</u> |
| 특 징 |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가정 내 지위는 남성과 거의 대등 | 가부장적 종법 질서 구현, 적서 차별, 부계 친족 중심 |

완벽하게 100% 적중!!

이제 **최고로 가독성** 좋은 책과 **최적의 강의**로 준비하세요!! **민주국사**

15.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서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중략)… 이 책을 지음에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 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②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③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④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출제영역 동국통감 p.834~835, 1105

정답 ①

민주국사 p. 835

② 15세기 중엽 이후의 사서

㉠ **특징** :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사회의 안정과 국력 성장의 바탕 위에서 성리학적 대의명분보다는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고, 왕실과 국가 위신을 높이며,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역사 편찬이 시도되었다.

㉡ **사서** : 고려 시대의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고자 하여, 기전체의 「고려사」와 편년체로 된 「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고, 통사로서 「동국통감」을 간행하였다.

㉢ **동국통감(성종)** : 서거정 등이 편찬한 최초의 통사로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였으며,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훈구 관료들이 골격을 세우고 사림이 사론을 씀으로써 양자의 입장이 절충되어 있다.

민주국사 p. 1103~1105

⑦ 이종휘의 동사(東史)·유득공의 발해고(渤海考)

㉠ **저서** : 이종휘의 「동사(東史)」와 유득공의 「발해고(渤海考)」는 각각 고구려사와 발해사 연구에 큰 공적을 세웠다.

㉡ **의의** :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특히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민족사 측면에서 신라와 발해를 병립시켜 남북국 시대를 처음 제안하였다.

⑤ 한치윤의 해동역사(海東繹史)

「해동역사(海東繹史)」에서 500여 종의 다양한 외국 자료를 인용하여 문헌적 고증을 통한 기전체 형식의 사서로 열전은 없고 세기, 지, 고(考)로 구성되어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16. 다음은 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②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현재 남아 전해지는 것이 없다.
- ③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가 40여 일만에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다수의 의궤를 약탈하였다.
- ④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출제영역 **조선 시대 의궤 p.838~839**

정답 ①



민주국사 p. 839

의궤(儀軌)

1. 내용

조선 왕실에서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 훗날 참고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문서로 그림으로 그려 넣고, 행사의 진행과 비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2. 절차

조선 왕실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시 기구인 도감(都監)을 두어 이를 주관하게 했는데, 행사를 마치면 도감을 해체하고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여 의궤의 편찬을 맡아보게 하였다.

3. 현 전

의궤는 조선 건국 당시 태조 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많은 관련 기록이 전하나 현재 조선 초기 의궤는 전해지지 않는다. 현전(現傳)하는 가장 오래된 의궤는 1601년(선조 31)의 인 왕후(懿仁王后)의 장례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편찬된 「의인 왕후 산릉도감 의궤(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와 「의인 왕후 빈전혼전도감 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이다.

4. 보관

보통 필사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소량을 제작하여 특별 제작한 1부는 어람용(御覽用)으로 왕에게 올리고 나머지는 관련 기관과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군이 외규장각(外奎章閣)에서 300여 책의 문서를 약탈하였다. 이들은 프랑스 파리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1년 4월 14일 약탈당한지 14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민주국사 p. 1194

핵심 요약

외규장각 고문서

1. 정부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강화도에 서 약탈해 파리 국립 도서관에 보관된 외규장각 도서 297권의 반환 협상을 위해 대사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협상 팀을 출범시키고 프랑스 정부와 본격적인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측이 맡아 온 반환 협상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협상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OOO신문(2005년 12월 16일)



○ 외규장각(인천 강화)

-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이곳에 보관 중이던 수백 권의 귀중한 서적을 약탈해 갔다.

199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반환을 촉구하면서 프랑스와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프랑스 정부에 끈질기게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요구해왔으나 관철이 되지 않아 한국의 문화연대 시민단체 주도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반환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하였다.

그 후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이후 외규장각 도서를 5년마다 갱신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리하여 2011년 4월 14일 1차분 75권의 반환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297권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와 병인양요 때 도둑맞은 외규장각 도서가 145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17. 다음 대한제국기의 개혁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권 수호와 절대화에 필요한 대한국 국제 제정
- ②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 추진
- ③ 다양한 시책을 통한 황실 재정 확충
- ④ 양전과 지계 발급 사업 실시

출제영역 대한 제국기 개혁 내용 p.1274, 1278~1281

정답 ②

민주국사 p. 1279

(2) 대한 제국의 개혁

① 정치 면

- ㉠ 대한국 국제의 반포(1899년) : 일종의 헌법으로 제정한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는 대한 제국이 전제 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이 무한함을 강조하고, 통수권 ·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 · 외교권 등을 모두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여 전제 군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 황실 권위 격상 : 태조 · 장조(사도 세자) · 정조 · 순조 · 익종을 황제로 추존하는 등 왕위를 격상시켰다.
- ㉢ 정궁(正宮)과 행궁(行宮) 설치 : 경운궁을 정궁으로 하고 법전인 중화전(中和殿, 1902년)을 건설하여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과 비슷한 면모를 갖추었으며,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시키고 이곳에 풍경궁(豐慶宮)이라는 행궁을 건설하여 양경 체제를 갖추었다.

핵심요약

대한국 국제(요약)

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5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육 · 해군을 통솔한다.

제6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 특사 · 감형 · 복권 등을 명한다.

제7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한다.

제9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대한국 국제

1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정한다.
- 노비 문서는 모두 소각한다.
-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토지는 평균 분작한다.

- ① 고부 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한 사건이며, 정부는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동학교도를 색출하고 탄압하였다.
- ②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은 임오군란 때 맺은 텐진(천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였다.
- ③ 농민군은 전주화약의 체결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④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보은 전투에서 대패한 후 해산하였다.

출제영역 **동학 농민 운동 p.1222, 1256~1257**

정답 ②

민주국사 p. 1223

⚙️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비교

| 구분 | 임오군란(1882년) | 갑신정변(1884년) |
|-----|---|--|
| 배경 |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 청의 내정 간섭 심화와 온건 개화파의 압박 |
| 과정 | 정부 고관 살해, 일본인 살해, 일본 공사관 파괴, 흥선 대원군 집권 | 일본 공사의 원조, 정강 14개조 발표, 3일 천하 |
|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청의 상권 확대) · 제물포 조약(일본에 배상금 지불, 일본군 주둔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 조약(공사관 신축비 부담) · <u>텐진 조약(청·일 양군 철수)</u> |
| 공통점 | 청과 일본의 대립, 청의 내정 간섭 심화, 개화 정책 후퇴 | |

민주국사 p. 1258

⚙️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 구분 | 1차 봉기 | 2차 봉기 |
|-------|---|--|
| 성격 | 반봉건적 | 반외세적 |
| 참가 | 남접 중심 | <u>남접·북접</u> |
| 지도자 |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 전봉준, 최시형, 손병희 |
| 전개 과정 | 고부 민란 ⇨ 무장 봉기 ⇨ 백산 봉기(4대 강령과 격문) ⇨ 황토현 전투(전라 감영군 격파) ⇨ 장성 황룡촌 전투(양호 초토사 홍계훈의 경군 격파) ⇨ 전주 점령 | 논산 집결 ⇨ 공주 이인 전투(복상 후 승리) ⇨ 공주 우금치 전투(패배) ⇨ 전봉준 체포 ⇨ 광주·장흥 전투 ⇨ 영동· <u>보은 전투</u> |

19. 다음 중 일제의 경제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10년대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와 농민의 경작권을 함께 인정하였다.
- ②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리시설의 확대와 품종교체, 화학비료 사용 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③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을 발전된 공업지역으로,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 ④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출제영역

일제 경제 침탈 p.1445~1452, 1454

정답 ①

민주국사 p. 1446

(2) 토지 조사 사업의 실시(1912~1918년)

③ 결과

- ㉠ **소작농의 부담 증가** : 이 과정에서 소작권(관습상 영구 경작권), 도지권(賭地權, 경작지에 대해 소작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입회권(入會權,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어 지주제가 강화되었다.
- ㉡ **농민의 유민화** : 근대화에 역행하는 지주제는 강화되고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민주국사 p. 1454

⚙ 일제 식민 통치 정책의 변화

| 시기 | 통치 1기(1910~1919년) | 통치 2기(1919~1931년) | 통치 3기(1931~1945년) |
|--------|--|---|---|
| | 무단 통치(헌병 경찰 통치) | 문화 통치(보통 경찰 통치 · 고등 경찰 통치) | 민족 말살 통치(황국 신민화) |
| 배경과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일제의 국권 강탈과 항일 민족 운동 • 목적 : 독립운동 탄압과 식민지 기반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3 · 1 운동 전개와 국제 여론 악화 • 목적 : 한민족의 이간 및 식민 통치 은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세계 경제 공황과 일제의 대륙 침략 확대 • 목적 : 민족 말살과 인적 · 물적 자원의 수탈 강화 |
| 정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독 : 무관, 중추원(자문기구)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금지 • 교원 · 관리(제복 · 칼) • 한국인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독 : 문관(실제 임명 안함)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교육의 완화 • 지방 자치 부분적 허용 • 한국인 등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선일체, 일선 동조론 • 일본식 성명 강요, 신사 참배 • 국어 · 국사 교육 금지 • 황국 신민 서사 암송 |
|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조사 사업(1912~1918년) •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 • 산업 침탈 : 회사령(허가제) •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 전매제도 • 사회 공공시설 독점(철도, 항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미 증식 계획(1920~1933년) (증산량 보다 수탈량 많음) • 회사령 폐지 ⇨ 신고제 • 중공업 정책 시작 (192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참 기지화 정책 • 남면북양 정책 • 농촌 진흥 운동 • 중화학 중공업 정책 활발 • 인적 · 물적 수탈 • 산미 증식 운동 재개(1939년) • 공출제 실시 |

완벽하게 100% 적중!!

이제 **최고로** **가독성** 좋은 책과 **최적의 강의로** 준비하세요!! **민주국사**

20. 다음 (가), (나)는 해방 후 두 정치인의 발언이다. 아래의 <보기>중 두 정치인이 발언한 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이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 ㉠ 포츠담선언
- ㉡ 제주 4·3 사건
-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
- ㉤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 남북지도자회의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출제영역 이승만과 김구 p.1652, 1656~1659, 1664~1667 **정답** ②

민주국사 p. 1667

🔗 대한민국의 성립 과정

| | |
|--------------------------|---------------|
| 카이로 선언(1943년 11월) | 독립 최초 확인 |
| ↓ | |
| 알타 회담(1945년 2월) | 38도선 합의 |
| ↓ | |
| 포츠담 선언(1945년 7월) | 독립 재확인 |
| ↓ | |
| 민족의 해방(1945년 8월) | |
| ↓ | |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년 12월) | 신탁 통치 결정 |
| ↓ | |
| 미소 공동 위원회(1946년, 1947년) | 임시 정부 수립 협의 |
| ↓ | |
| 유엔 소총회(1948년 2월) | 선거 가능 지역 실시 |
| ↓ | |
| 제주도 4·3 사건(1948년 4월) | 5·10 선거 반대 목적 |
| ↓ | |
| 5·10 총선거(1948년 5월) | |
| ↓ | |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8월) | |

민주국사 p. 1652

② 포츠담 선언(1945년 7월)

㉠ 참가국 : 미국(트루먼) · 영국(처칠 ⇨ 에틀리) · 소련(스탈린) · 중국(장제스) 등 연합국 대표가 참여하였다.

㉡ 내용 : 카이로 선언(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2. 포츠담 선언(1945년 7월 26일)

카이로 선언의 여러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 홋카이도 · 규슈 ·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1. 미국, 중국, 영국은 일본에 대하여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민주국사 p. 1663~1664, 1666

㉠ 이승만의 남한 정부 단독 수립 발언 : 1946년 6월 이승만은 정읍 발언에서 “남쪽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남북 분단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제 무기 휴회된 공위(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을 뜻함)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 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 서울신문(1946년 6월 4일)

▣ 통일을 위한 노력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구(1948년 2월 10일)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국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넣은 극약극홍의 위험한 일이다.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 유일의 이념을 재검토하여 국내외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이 육신을 조국이 요구한다면 당장이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생전에 38도선 이북에 가고 싶다. ……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

완벽하게 100% 적중!!

이제 **최고로** 가독성 좋은 책과 **최적의 강의**로 준비하세요!! **민주국사**



[민주국사]

민주 국사 이론 종합반

출수월 개강! 매주 [목] 09:00~12:50 [10~12회]

민주 국사 심화 이론 단과

출수월 개강! 매주 [수, 목] 18:40~22:20



민주 국사 기본 이론서



민주 국사 핵심요약집



단원별 민주 국사 기출문제집



시행처별 민주 국사 기출문제집



민주 국사 이론서



민주 국사 실전모의고사



민주 국사 정(章)정리



민주 국사 OX문제집

gosi.passone.net 02.870.8500

학원/동영상/교재

KG 패스원 한교고시학원

민주국사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jkuksa>

